

박정아 영입 화력 강화...페퍼스 '코보컵 반란' 노린다

29일 구미서 개막, 도로공사와 첫 경기...채선아 신고식 활약 관심 트린지 감독 '스마트 배구' 통할지 관심...야스민·필립스 출전 안해

광주 배구팬들의 눈길이 오는 29일 개막하는 2023 구미·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에 쏠리고 있다. '국대' 공격수 박정아와 채선아(이상 아우스사이트 히터) 등이 페퍼즈축은행 AI페퍼스 유니폼을 입고 신고식을 치르기 때문이다. 조 트린지(36·Joe Trinsey) 감독이 추구하는 '스마트 배구'를 직관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한국프로배구의 '프리 시즌' 구미·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KOVO컵 프로배구대회)가 이날 경상북도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다.

여자부는 추첨을 통해 A, B조 팀을 정했다.

A조에는 페퍼스, 한국도로공사, 현대건설, KGC인삼공사가 들어갔고 B조에 흥국생명, IBK기업은행, GS칼텍스, 슈프림 춘부리가 속했다.

페퍼스는 한국도로공사와 개막전을 치른다.

도로공사는 페퍼스와 트레이드에서 독한 인연을 맺은 팀이다.

박정아를 데려오면서 이고은을 보호선수로 묶지 않아 도로공사에 내준 뒤 6일만에 다시 불러들이는 춘극을 빚었다. 미래 자원인 마블 블로커(센터) 최가은과 2023-2024시즌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까지 헌납하는 큰 손해를 봤다.

페퍼스가 연봉 7억7500만원에 영입한 박정아는

전 소속팀 동료들과 개막전부터 '찍'으로 만난다. 박정아는 최근 미디어 데이에서 "도로공사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은 없고 모든 경기를 다 이기고 싶다"고 예뻐 말했다.

박정아와 세터 이고은의 연계 플레이도 관전포인트다. 이고은은 박정아와 IBK기업은행,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3번째 팀에서 호흡을 맞춘다.

연봉 1억원에 페퍼스 유니폼을 입은 채선아가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도 주목된다. 채선아는 서브 리셉션과 수비가 장기다.

이들을 영입함으로써 화력을 강화한 페퍼스가 지난 대회 3전 전패의 불명예에서 벗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컵 대회는 새 외국인 사령탑 조 트린지 감독의 데뷔전이다. 관전 포인트는 그가 추구하는 스마트 배구다.

트린지 감독은 미디어 데이에서 "다른 팀은 부담을 느끼지만 우리팀에게는 쉬운 플레이"라고 스마트 배구를 설명했다. 우리팀에게는 익숙해 간단할 플레이가 상대팀에게는 복잡하게 느껴지는 개념이라고 했다. 코트에서는 스마트 배구가 어떻게 선수들의 플레이에 녹아있는지 볼 수 있는 기회다.

다만, 조 트린지 감독이 본격 훈련을 실시한지 10



트린지 감독

여일밖에 되지 않아 확실한 색깔을 보여주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디어 데이에서 "한국배구, 아시아 배구에 대해서는 국제적 관점에서 알고 있지만, 페퍼스 구단은 물론 선수들 개인의 능력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그 첫 경기를 이기고 매 라운드 발전함으로써 봄 배구에 적합한 팀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서 "컵대회는 우리 전력은 물론 선수



박정아

기량을 파악하고 상대팀의 전력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퍼스가 영입한 야스민과 엠제이 필립스는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다. 허리부상으로 재활하고 있는 야스민은 8월초 입국할 예정이고, 아시아 쿼터로 영입한 필립스는 타구단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계약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출장하지 않는다.

한편, 이번 대회는 여자부 경기가 먼저 개막해 8

월 5일까지 열리고, 남자부는 8월 6일에 시작해 13일에 결승전을 치른다.

이번 대회는 V리그 남녀 14개 팀에, 국외 리그 남녀 1개 팀씩이 초청받아출전한다.

남자부에서는 지난 시즌 일본 V리그 3위 파나소닉 팬더스, 여자부는 태국 리그의 강호 슈프림 춘부리가 구미 컵대회에 참여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우민, 자유형 800m서 박태환 넘어섰다

세계수영선수권 7분47초69

11년 만에 한국신기록 경신

예선 14위로 결승 진출은 실패

김우민(21·강원도청)이 남자 자유형 800m에서 '박태환의 한국기록'을 넘어섰다.

김우민은 25일 일본 후쿠오카 마린메세 후쿠오카 호텔에서 열린 2023 후쿠오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연 남자 800m 예선 2조에서 7분47초69로 역영해 조 1위를 차지했다.

김우민은 3조와 4조에 포진한 세계 정상급 중장거리 선수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예선에 출전한 38명 가운데 14위로 밀려 8명만 나가는 결승 티켓을 얻지는 못했다.

하지만 김우민은 한국기록을 바꿔냈다.

중전 남자 자유형 800m 한국기록은 박태환이 2012년 8월 런던올림픽에서 세운 7분49초93이었다.

김우민은 박태환의 기록을 2초24 당겼다.

박태환의 자유형 800m 기록은 2012 런던 올림픽 1,500m 경기 중 측정된 '800m 구간 기록'이다. 공식 800m 경기였다면 박태환이 기록을 더 단축했을 가능성은 크다.

하지만, 김우민 기록의 가치는 줄지 않는다. 박태환을 넘어섰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

김우민은 지난 6월 광주수영선수권에서 7분49초97에 터치패드를 찍었다. 한 달 만에 자신의 기록을 2초28 단축하며 한국신기록까지 세웠다.

김우민은 이번 후쿠오카 세계선수권 자유형 400m에서도 예선(3분44초52)과 결승(3분43초92)에서 두 번 연속 자신의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다.

결승에서는 5위를 차지하며, 지난해 부다페스트 대회(6위)보다 한 계단 더 올라섰다.

후쿠오카 대회를 통해 김우민은 한국 남자 수영 중장거리 간판선수의 입지를 굳혔고, 세계 중상부 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앞서 열린 남자 평영 50m 예선에 출전한 최동열



김우민이 25일 일본 후쿠오카 마린 메세 후쿠오카 호텔에서 열린 2023세계수영선수권 남자 자유형 800m 예선에서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24·강원도청)은 27초48을 마크해 전체 19위로

16위까지 주어지는 준결승 출전권을 얻지 못했다.

허영경(17·광산고)은 여자 자유형 200m 34위

(2분01초19), 문승우(20·전주시청)는 남자 접영

200m 21위(1분57초79)로 예선에서 탈락했다.

/연합뉴스



광주체육회, 체전 대표 광주대 여자농구 격려

광주시체육회(회장 전갑수)가 올해 전국체전에 광주대표로 출전하는 광주대학교 여자 농구팀을 격려했다.

전갑수 회장은 지난 24일 광주대학교 체육관을 방문해 하계강화훈련을 하고 있는 광주대 농구팀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선전을 당부했다.

국선경 감독이 이끌고 있는 광주대 농구팀은 오는 10월 목포 등지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출전한다.

최근 제39회 MBC배 대학농구 상주대회에서 동

메달을 따내는 등 탄탄한 전력을 구축하고 있다.

전갑수 회장은 "장마와 무더위에도 묵묵히 훈련하는 선수들이 든든하다"며 "광주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실력과 함께 인성을 갖췄으면 한다.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선수단 격려에 앞서 노진영 광주대 이사장과 만나 광주 대학체육 발전을 위해 상호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난해 준우승 임성재 '올해는 우승 목표'

PGA 3M오픈 27일 개막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3M오픈(총상금 780만 달러)이 27일부터 나흘간 미국 미네소타주 블레인의 TPC 트윈시티스(파71·7431야드)에서 열린다.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 본사가 있는 3M 기업이 후원하는 이 대회는 2019년 창설돼 올해로 5회째를 맞는다. 3M은 미네소타(Minnesota)와 광업 제조(Mining and Manufacturing)의 M자를 모은 것이 유래로 알려졌다.

지난주 영국에서 열린 메이저 대회 디오픈 직후 열리는 미국 대회여서 톱 랭커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다. '디펜딩 챔피언' 토니 파나우(미국)가 출전 선수 가운데 세계 랭킹 16위로 순위가 가장 높다. 그 뒤를 이어 18위 캐머런 영, 20위 저스틴 토머스(이상 미국), 23위 임성재, 디오픈 공동 2위에 오른 세계 랭킹 28위 제프 슈트라카(오스트리아) 순이다.

특히 임성재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 파나우에 3타 뒤진 공동 2위로 선전해 올해 대회에서도 상위권 입상 기대감을 키운다.

이 대회는 또 2022-2023 시즌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진출을 놓고 선수들이 막판 스퍼트를 해야 하는 대회이기도 하다. 올해 3M오픈에 한국 선수로는 임성재 외에 이경훈, 김성현, 노승열이 출전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밀수
- 2관 엘리멘탈
- 3관 명탐정코난: 흑철의 어영, 인시디어스: 빨간 문, 여름날 우리
- 4관 밀수
- 5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명탐정코난: 흑철의 어영, 티에이지 크라켄 루비
- 6관 밀수
- 9관 밀수
- 7관 싸이클링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메타모르포제의 뒷마루
- 8관 싸이클링 바버, 인시디어스: 빨간 문, 헌티드 맨션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기획공연 포시즌 미디어아트 뮤지컬 파랑새
일시: 2023-08-24(목)-25(금) 19:3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062-613-8235

GAC 재개관 시리즈 - 포시즌 III 「정트리오 콘서트」
일시: 2023-08-26(토) 17:0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062-613-8235